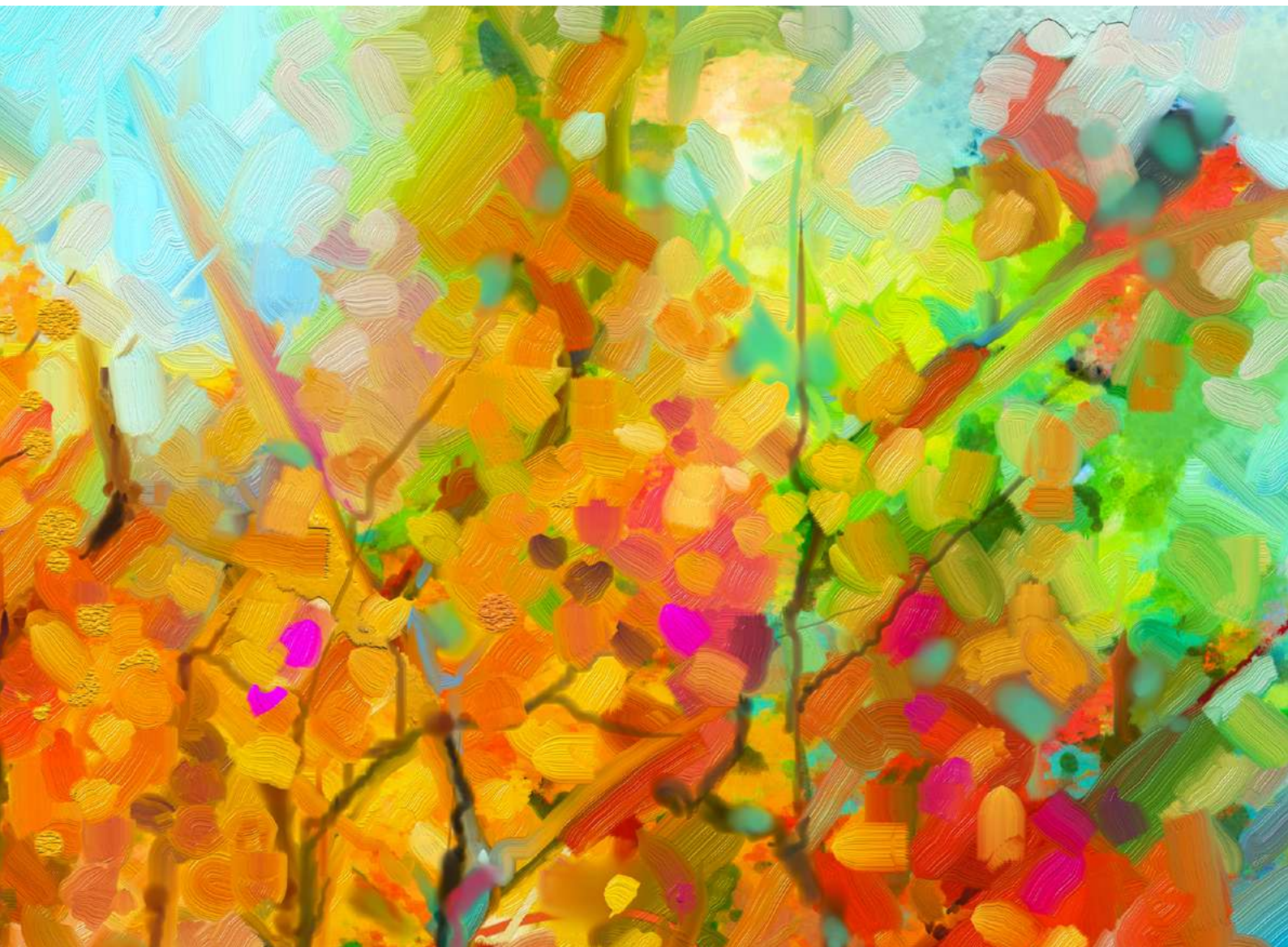


언론 사람

10
2021
VOL.256



04 인터뷰 人+人
도진기 변호사

06 Newmedia of the World
반향실 효과와 사회공학

08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
자식과 같이 걷는 프로그래머의 길

18 식물관찰자의 일기
지의류(地衣類)
- 지구에 옷을 입히다

Contents

2021 October

04

인터뷰 人+人

도진기 변호사

06

Newmedia of the World

반향실 효과와 사회공학

08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

자식과 같이 걷는 프로게이머의 길

10

새가슴 PD의 분쟁현장 르포

새가슴 PD의 여행가방 수난기(2)

- 좋은 여행가방 고르는 법

12

돈보기

유머의 효용

14

단어의 중력

연민

16

책의 밀도

우리는 풍경 속에 위치하고

시간 속에 놓인다

- 캐슬린 제이미의 『시선들』

18

식물관찰자의 일기

지의류(地衣類)

- 지구에 옷을 입히다

20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22

미디어 이슈 진단

보도와 심리의 전문성 제고

23

키워드로 보는 40년사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일 2021년 10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표지작품 pluie_r <A glorious autumn foliage>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
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
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남긴 말입니다.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라고들 하지만 정작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마주하게 되면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마음부터 드는데요. 평소 이런 저런 핑계로 책을 읽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때가 많아진 지금이 아말로 책 한 권을 꺼내들 적기가 아닐까 합니다.

언론  사람 10월호는 오랜 시간 법조인으로 일하다 추리소설 작가로 데뷔해 장르문학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는 도진기 변호사를 만나 추리소설의 매력과 변화하고 있는 독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Newmedia of the World>에서는 페이스북 연구진들이 발견한 에코 체임버 효과 및 완화 방안이 던지는 시사점을,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에서는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시선과 생각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를 둘러싼 풍경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책의 밀도>,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생명체 지의류(地衣類)를 소개하는 <식물관찰자의 일기> 코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책 한 권, 그리고 언론  사람 10월호가 여러분 곁에 머무는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리소설에 담긴 법과 상식의 간극

도진기 변호사

- 법무법인 서울센터럴 변호사,
EBS 라디오 <도진기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년 한국추리문학대상,
2010년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
- 저서 <붉은 집 살인사건>, <악마는 법정에서 서지 않는다> 등 다수



Q 법조인으로 오랜 시간 일하시다 추리소설 작가로 데뷔하셨는데요. 추리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A 어릴 때부터 추리소설을 좋아하긴 했는데요. 판사로 일할 때 출퇴근에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지하철에서 추리소설을 많이 읽었거든요. 한창 일본 추리소설 붐이 일었던 때여서 수많은 책들이 번역 출간됐는데 정말 신기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책들도 있었지만 졸작도 많더라고요.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너무 재미없는 책들을 읽다 보니 문득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쓰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재미없는 작품도 국내에서 팔리는데 우리나라 작가라고 이것보다 못 쓸까하는 오기도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Q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이 작가 활동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법조인의 역할은 이미 발생한 사건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법리와 판례에 맞게 처리하는 것인 반면, 작가는 새로운 인물, 사건을 만들고 이야기를 창작하는 게 주된 일이지요. 마치 뇌의 스위치를 켜다 켜는 것처럼 정반대의 작업이었어요. 다만 잘 듣고 본 후 좋은 결론을 내야 하는 판사의 직업적 역할과 태도가 작가로서의 삶에 암묵적인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적극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다보니 사회생활에 유리한 성격은 아닌데요. 그 대신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고 바라보던 버릇이 작가로서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Q 추리소설 작가로 활동하신 기간에 비해 많은 작품들을 쓰셨는데요.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는지 궁금합니다.

A 소재는 정말 다양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영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가장 많은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책

이예요. 주로 걸작을 읽다가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별로라고 생각한 작품을 읽으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을 보면 좋은 작품으로 꼽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Q 한 일간지에 형사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해 소개하는 연재물을 기고하기도 하셨는데요. 실제 사건 중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 사건이 있었나요?

A 책 <판결의 재구성>에도 등장하는 부산 노숙인 살인사건이 기억나는데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망한 노숙인과 자신을 바꿔치기 한 사건이었죠.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위장한 점은 <화차>를 떠올리게 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숙인을 살해한 것은 <용의자 X의 헌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 20여 년 만에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해 체포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작가들조차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생각해보니 그런 실제 사건들이 다 작품 소재가 되는 것 같네요.

Q 최근 추리, SF 등 장르소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여유가 있어야 상상력이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를 벗어나 문화적 소양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많이 풍요로워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리소설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동심을 간질여주고 채워주는 문학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추리소설의 바탕은 결말이 궁금해서 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호기심이니까요.

Q 전자책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종이와 아닌 디지털 화면으로 책을 읽게 된 환경이 집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거의 의식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해 웹소설을 연재하게 되면서 차이를 알게 됐어요. 확실히 전개 방식이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느꼈죠. 웹소설은 매회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회를 읽고 싶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압축적이고 긴박하게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템포가 좀 느렸던 것 같아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죠. 처음에는 종이책보다 부담도 적고 내가 피아니스트라면 건반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재밌게 썼는데, 책으로 거의 세 권 정도 분량을 쓰고 나니까 다시 진중하게 종이책을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Q 추리소설 작가로서 자신만의 특징이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법률이죠. 심정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무죄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시민의 상식과 법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법의 모순을 소설 속 트릭으로 활용하곤 하는데 많은 독자들이 그런 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평생의 업이었던 법이 소설에 이렇게 활용되고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곤 예상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제 무기이자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네요.

Q 앞으로 다뤄보고 싶은 주제나 내용이 있으신가요?

A 최근 SF 단편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인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SF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SF를 좀 더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을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가정해버리면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인간과 인간의 마음인데, 각자 스스로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말 그 생각이 맞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두드려보고 싶어요. 법률가로서 법률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도 계속 쓰고 싶습니다.

※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위원회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코 체임버와 페이스북 '기술적' 해결방안의 의미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반향실)가 인지 편향의 상징어로 등장한 건 대략 2000년대 초반이다. 미국 하버드대 캐스 선스타인 교수가 자신의 논문, 책 등 일련의 저작을 통해 이 개념을 소개하고 발전시킨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에코 체임버의 이론적 단초는 1995년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디지털이다'가 제공했다. 네그로폰테 교수는 당시 '더 데일리 미(The Daily Me)'¹⁾ 즉, 나를 위한 뉴스라는 조어를 만들어 맞춤형 정보 포털이 지니는 긍정적 효능에 주목했다. "컴퓨터가 사용자의 기호, 취미, 관심사 등을 사전에 점검해서 수많은 정보 중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해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고도 했다.²⁾ 이러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미래의 뉴스' 프로젝트를 손수 주도하기까지 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더 데일리 미'가 인류를 양극단으로 쪼개놓는 부정적 인지 효과의 원흉이 될 것이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스타인 교수가 에코 체임버라는 메타포를 꺼내들어 부정과 비판의 언어로 치환한 것은 2000년 미국 대선외의 사회 분열상 때문이었다. 엘 고어와 부시의 정치적 대결 양상이 이념 집단의 극단적 분화를 초래하자 그 메커니즘을 반향실에 비유한 것이다(Sunstein, C. R. 2001). 이후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미디어로 적용 범위가 확장되며 오늘날 확증편향을 이해하는 학술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됐다.

사실, 에코 체임버는 필터 버블이라는 용어와 함께 엄밀하게 정의된 용

어는 아니다. 이런 탓에 이 은유를 확증편향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동인으로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 중이다. 부정하는 연구자들도 적잖다. 엄격하게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기에 증명과 반증이 쉽지 않고, 따라서 논박과 논쟁도 어렵다. 오죽하면 '가장 멍청한 은유'라는 비판까지 제기됐겠는가(Bruns, 2019).

페이스북의 에코 체임버 작동 방식과 위험성

반전은 페이스북이 최근 발표한 논문, '추천 시스템의 선호 확산'에서 시작됐다. 페이스북 소속 3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작성한 이 논문은 페이스북 추천 시스템의 에코 체임버 효과를 증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연구진은 에코 체임버 효과를 "피드백 루프의 결과로 자신의 견해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좁아지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경계선 콘텐츠를 페이스북에 노출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전개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는 이론적 대안도 제시했다. 경계선 콘텐츠로는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세미 nude 동영상도 활용됐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의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피드백 루프'를 통해 변화하고 진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편향 콘텐츠를 사용자가 선택하면 그와 유사한 콘텐츠를 재추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탐색하면서 정확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친다. 선호를 반복적으로 파악하면서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정확도를 높여가는 일련의 수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향실 효과와



핵심은 피드백 루프를 형성시키는 기계의 반복적 최적화 학습에 있다. 기계가 사용자의 피드백을 계속 학습하다 보면, 사용자의 편견을 강화하는 에코 체임버에 가두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페이스북 연구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은 주로 불쾌감을 주는 비디오를 표시하는 데 집중하게 되며,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이러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찾고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확증편향의 악순환’ 루프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테스트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실제로 나타났다. 그들이 정의한 에코 체임버 효과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확인했다.

페이스북 연구진들의 해결 방법과 한계

주목할 것은 에코 체임버 효과의 완화 방안이다. 난해한 수학적식을 토대로 실험실 수준에서 테스트한 결과,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는 기계의 학습률을 조정함으로써 편견의 강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고 했다. 사용자 선호의 반복적 학습 과정에 일종의 제동 장치를 걸어버린 것이다. 확증편향의 가능성을 완화하면서도 사

용성의 향상을 꾀해야 하는 난제를 이 같은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들의 해결책은 페이스북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에 성공 여부를 보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정 시점에 더 이상 사용자 선호를 업데이트하지 않고서도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페이스북 스스로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깊다. 에코 체임버 효과를 완화

할 수 있는 기술적, 수학적 차원의 단초를 발견했다는 사실 또한 어떤 식이든 평가받아야 한다. 심지어 알고리즘 설명성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는 사회과학 연구자들보다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정보 공급자의 객관적 신뢰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반향실 이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보다도 현실적이다.

다만 에코 체임버에 대한 사회과학과 공학의 공통된 정의를 바탕으로 협력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반향실 효과의 정의와 발생 조건을 공동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두 집단의 불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그렇다. 제도와 기술 간의 교류, 그리고 대화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1) <http://assets.press.princeton.edu/chapters/s8468.pdf>

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506090082573719>

※ Bruns, A. (2019). It's not the technology, stupid: How the 'Echo Chamber' and 'Filter Bubble' metaphors have failed u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 Kalimeris, D., Bhagat, S., Kalyanaraman, S., & Weinsberg, U. (2021, August). Preference Amplification in Recommender Systems. In Proceedings of the 27th ACM SIGKDD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 Data Mining (pp. 805-815).

※ Sunstein, C. R. (2001). Echo chambers: Bush v. Gore, impeachment, and beyon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사회공학



자식과 같이 걷는 프로게이머의 길

영국의 테니스 선수 엠마 라두카누가 US 테니스 오픈에서 우승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뉴스였다. 겨우 18세의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무언가를 성취해 낸 것은 크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늦은 나이의 성취가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앤 피시는 무려 58세의 나이에 프로게이머로 데뷔했다. 앤이 하는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자 수가 많은 게임이다. 다만 3억 5천만 명에 달하는 포트나이트 사용자 중 55세 이상은 겨우 0.1%라고 한다. 심지어 앤은 원래 컴퓨터와 친했거나 게임을 즐겼던 것도 아니다. 이제 스물넷, 열일곱 살인 아들들의 어린 시절에 닌텐도 게임기로 같이 놀아준 것이 게임 경력의 전부다.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에 직접 입문한 것은 올해 초의 일이라고 한다. 프로게이머인 둘째 아들 벤지가 경기하는 것을 보다가 자기도 직접 게

임을 하면 경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벤지 피시는 이 게임의 세계 최강자 중 하나다.

게임을 e-스포츠라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스포츠와는 달리 게임은 종종 주의와 경계의 대상이 된다. 잠시만 신문을 훑어봐도, 게임 중독에 대한 경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게임이 정서를 변하게 한다거나 우울증이나 ADHD 같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비난 역시 드물지 않다. 영국 왕위 계승 순위 2위인 해리 왕자가 온라인 게임, 그것도 포트나이트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도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지난 8월 말, 미성년자는 평일에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초강력 조치를 도입해 버렸다. 이는 2019년부터 운영해 오던 섯다운제를 강화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그간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예 금요일, 주말, 휴일에 한해 오후 8~9시, 1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한국의 학부모들이 부럽다거나 비슷한 규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니,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은 부모의 근심과 우려의 대상인 경우가 많은 듯하다. 게임을 하면 학습이나 독서는 물론 사람과 직접 교류하거나 신체 활동을 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게임 업계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아동 및 청소년



년의 게임 이용 시간이 늘어났다 하니,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녀가 게임을 멀리하게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고 서로 요령을 나누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그런데 앤 피시는 이런 부모들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리기는커녕 아들 벤지가 게임을 해서 결국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어린 시절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하던 벤지는 팔꿈치 부상으로 운동 대신 여러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13세에 포트나이트를 시작했는데 2년 후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한 최소 연령에 달하자마자 프로로 영입되었다. 앤은 벤지가 다니던 학교에 게임 연습과 시험 참가를 위해 수업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아들을 자퇴시켰다. 필요한 학습은 가정교사를 불러서 하고 체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시킨다. 앤은 벤지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앤은 게임 유망주와 스포츠나 연기 유망주가 그리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최고가 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니, 프로게이머가 되었다는 것은 프로 축구선수가 된 셈이라는 주장이다. 프로게이머로서 벤지는 하루 십여 시간의 훈련 내지 시험을 한다고 한다. 또 프로가 된 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게임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이 50만 파운드(한화로 8억 원이 넘는 액수다)라고 하니, 아주 틀린 말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가 젊은 연령대인 것 역시 비슷하다.

더 나아가, 게임 업계에 종사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증이나 학위 등도 필요 없는데다 관리나 행정 쪽으로 무궁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앤의 주장이다.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관리하던 앤이 다른 사람이라면 은퇴를 고려할 나이에 마침내 본인 스스로 프로게이머가 된 것은 이 주장을 몸소 입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앤은 직접 게임을 하는 영상을 방송하거나 청소년들이나 부모에게 게임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하며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앤이 받기로 한 연봉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유튜브 구독자 수는 16만 명이 넘는다.

세상이 변하기는 한 모양인지, 다양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게임에 매진할 수 있게 하려고 정규 교육을 그만두게 하다니, 아무래도 쉬운 결정은 아닐 듯하다. 그런데 게임뿐 아니라 다른 스포츠나 연예 활동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다. 학업 역시 적성에 맞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과가 없기도 하다. 앤과 벤지의 경우는 적성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더 나아가 생각을 전환하면 다른 길이 보이기도 한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자식에게도, 심지어 부모에게도.



새가슴 PD의 여행가방 수난기 ②

좋은 여행가방 고르는 법



제가 20여 년간 취재 다니며 수십 개의 가방을 망가뜨려 보고 얻은 꿀팁을 공유하자면, 먼저 여행가방 바퀴는 두 개짜리 보다 네 개짜리가 튼튼합니다. 장비의 무게를 견디는 데에도 바퀴 4개짜리가 더 안정적입니다. 공항 다니다 가끔 바퀴가 네 개인데도 두 개로만 질질 끌고 가는 분들 계시는데 물건 하중이 골고루 가도록 바퀴 4개를 다 굴리면서 다니면 여행가방이 덜 망가집니다. 여행가방은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굴리고 다녀야 하는 물건이라고요.

그리고 외국에 캐리어 한번 들고나갔다 오면 무조건 햇볕에 다 열어 말려줘야 합니다. 비행기 타면서 티켓도 없이 캐리어에 탑승하신 이름 모를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외국에는 한국과 다른 세균,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문제지만 이외에도 이름조차 모르는 풍토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존재합니다. 우린 내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가방에 묻어와 집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 무서운 메르스, 에볼라. 어디서 묻어올지 모르잖습니까? 외국 공항이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중동 아프리카 등등 온갖 나라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재 마치고 한국 오면 유비무환으로 무조건 여행가방을 살균합니다.

여행가방에 각 공항마다 붙여주는 수하물 스티커 덕지덕지 붙여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행 많이 다니는 분들일수록 많이 붙여 있을 겁니다. 이거 무조건 다 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티커에 붙어있는 바코드가 공항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며 가끔 읽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행가방이 다른 나라로 갑니



다. 가방이 잘못 가기 시작하면 세계일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도 공항을 나올 때 반드시 모든 스티커와 태그를 땡니다.

그리고 여행가방에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써둡니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표시하는 여행가방도 봤습니다. 혹시라도 가방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이름표 부착은 필수입니다.

기내에는 캐리어 같은 여행가방을 들고 타는 것보다 앞사람 좌석 밑에 넣어둘 수 있는 작은 배낭을 들고 타는 것이 편합니다. 선반에 넣어두면 비행 중에 뭘 꺼내기가 힘듭니다. 가방을 발 가까이 두면 내릴 때도 부딪치지 않고 간편합니다. 물론 캐리어를 들고 타는 것이 우아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아함을 포기하고 편리함을 택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가면 괜찮지만 제3세계를 가신다면 유명한 브랜드의 가방은 피하십시오. 그런 나라 공항에서는 세관원의 표적이 됩니다. 가방이 비싸 보이니 돈이 많은 사람일거라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안 깨지는 물건들은 라면 박스에 담아서 수하물로 부칩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현지인들은 박스나 시장 가방 같은 것에 물건을 수하물로 부칩니다. 제 물건도 눈에 잘 안 띄게 박스에 담으면 세관원의 관심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관원의 관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가방 안을 다 풀어보고 뭐는 반입금지네 하는 시비를 겁니다. 뒤통수 달라는 사인이죠. 비싼 가방을 든 승객도 이런 시달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싼 가방을 그때그때 구입해서 취재 갑니다. 한번 쓰고 말더라도 그게 안전하니까요.

예전에 취재할 땐 장비가 다 컸는데 요즘은 아주 컴팩트해져서

가방 부피를 적게 차지합니다. 장비 사이사이에 옷을 끼워 넣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샴푸, 린스를 들고 다녔는데 비행기 기압 때문인지, 가방을 얼마나 세게 던져서인지 잘 터집니다. 가방 안 물건이 샴푸 범벅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에 비누 하나만 챙깁니다. 머리도 비누로만 감고 바디샤워도 비누로 대신합니다. 비누는 터지지 않으니 안심이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나라에 따라 다른 캐리어를 들고 다닙니다. 아주 저개발국을 갈 때는 거의 일회용이라고 생각할 만큼 버려도 아깝지 않은 가격과 퀄리티의 캐리어를 들고 갑니다. 어차피 그런 나라 공항 가면 굴러도 한참 굴려서 가방이 아주 못쓰게 되어서 나옵니다. 아마 비싼 가방이면 바로 뇌물 건으로 오실 겁니다.

독재 국가를 가면 하드 캐리어로 된 가방은 무조건 피합니다. 이 상하게 독재 군정은 하드 캐리어에 예민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요. 가방이 좀 있어 보여서 그런지 하드 캐리어를 들고 가면 바로 세관원이 부릅니다. 가방 속을 다 열어보고 화장품까지 다 쏟아보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취재 장비 외의 짐은 항상 최소화해서 들고 다닙니다. 여차하면 버려도 되는 물건과 가방을 사야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공항에서 내 가방이 터져 나오거나 바퀴가 망가진 채로 나오면 정말 짜증 납니다.

코로나 시국에 일 년 반 넘게 비행기를 못 타는 상황을 맞으니 가방 때문에 생겼던 에피소드들도 이제는 그립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공항에서 아주 싸구려 가방과 라면박스 들고 수하물 부치는 새가슴 PD를 다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유머는 여유와 관대함에서 나오고 그것은 다시 여유와 관대함을 확대한다. 유머는 웃음의 원천이다. 웃음은 웃는 사람의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매개체이다.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웃음은 물론이고 억지웃음이라도 많이 웃는 것이 좋다고 한다.

‘우유풍의(優游風議)’는 《삼국지·촉지(蜀志)·간옹전(簡雍傳)》에 나오는 구절이다. 간옹은 삼국시대 촉나라 사람으로, 젊어서부터 유비와 교류하면서 종사중랑(從事中郎)의 벼슬을 지냈다. 뒤에 익주자사(益州刺史)이던 유장(劉璋)을 설득하여 유비에게 항복하게 한 공으로 소덕장군(昭德將軍)에 임명되었다. 그는 유비와 격의 없이 지내면서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처럼 유머를 통해 국가 경영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유비가 익주에 들어갔을 때, 유장이 간옹을 보고 매우 좋아했다. 뒤에 유비가 성도를 포위하고 간옹으로 하여금 유장에게 가서 설득하게 하자, 유장은 마침내 간옹과 함께 수레를 타고 성을 나와 귀순했다. 유비는 간옹을 소덕장군에 제수했는데, (그는 유비를) 여유 있고 대범하게 풍자하여 깨우쳐 주곤 했다. 천성이 소탈하고 자유분방하여 유비가 있는 곳

에서 자리에 앉을 때도 다리를 뻗고 비스듬히 기대 앉았으며 모습이 엄숙하지 않고 유유자적했다. 제갈량 이하로는 (상대를 대할 때에) 유독 혼자 걸상을 차지한 채 목에 베개를 베고 누워 대화했으며 굽히는 대상이 없었다. 당시에 가뭄이 들어 금주령을 내리고, 술을 빚는 자들을 처벌했다. 아전들이 민가에서 술을 빚는 도구를 찾아내자, 죄를 의논하는 자들이 술을 빚는 자와 똑같이 벌을 주려고 했다. 간옹이 유비와 외출에 나섰다가 어떤 남녀가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유비에게 아뢰기를, “저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 잡아 가두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유비가 이르기를, “그대는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라고 하자 간옹이 대답하기를, “저 사람들이 그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 술을 빚으려는 자들과 똑같습니다”라고 했다. 유비가 크게 웃고 나서 술을 빚으려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다.(先主入益州, 劉璋見雍, 甚愛之. 後先主圍成都, 遣雍往說璋, 璋遂與雍同輿而載, 出城歸命. 先主拜雍爲昭德將軍. 優遊風議, 性簡傲跌宕, 在先主坐席, 猶箕踞傾倚, 威儀不肅, 自縱適. 諸葛亮已下則獨擅一榻, 項枕臥語, 無所爲屈. 時天旱禁酒, 釀者有刑. 吏於人家索得釀具, 論者欲令與作酒者同罰. 雍與先主遊

유머의 효용

優游風議

우유풍의

—
여유 있고 대범하게 풍자하여 깨우치다.



觀, 見一男女行道, 謂先主曰, 彼人欲行淫, 何以不縛? 先主曰, 卿何以知之? 雍對曰, 彼有其具, 與欲釀者同. 先主大笑, 而原欲釀者.)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지나친 행동을 하면 보좌하는 이들이 충고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야 한다. 이때 직설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위키 예처럼 유머를 활용하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간웅의 유머는 위사람으로서의 애민정신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 정신이 유머를 통해 실현됨으로써 백성들은 편안해지고 나라는 잘 다스려졌다.

이런 선례는 일찍이 포악한 정치로 유명했던 진시황 시기에도 있었다. 유머가 풍부했던 우전(優旃)이라는 이가 다음과 같이 풍자하여 진시황의 사치와 낭비를 그치게 했다.

진시황이 일찍이 원유를 크게 넓혀서 동쪽으로는 함곡관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웅현과 진창현에 이르게 하려고 계획했다. 우전이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그 안에 새와 짐승을 많이 풀어 놓으면 외적이 동쪽에서 쳐들어오더라도 고라니와 사슴으로 하여금 그들을 뿔로 받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진시황은 이 때문에 (그 계획을) 그만두었다.(始皇嘗議欲大苑囿, 東至函谷關, 西至雍陳倉. 優旃曰, 善. 多縱禽獸於其中, 寇從東方來, 令麋鹿觸之足矣. 始皇以故輟止.)

《사기·골계열전(滑稽列傳)》

풍자적 유머를 통해 국력의 낭비를 줄이고 백성들의 고초를 덜어준 예이다. 보좌하던 지도자에게 올바른 방향을 일깨워 주고 적절한 결정을 하게 했던 유머의 효용이 앞에서 살핀 간웅의 예와 비슷하다.

근래의 정치가 중에 유머로 이름난 이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영국의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1874-1965)이 있다. 그의 통치 철학은 종종 유머로 드러나곤 했다. 한 번은 처칠이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다가 넘어져 청중들이 웃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넘어져 국민이 즐겁게 웃을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넘어지겠습니다.”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유머로 드러나 있다. 그런 지도자를 대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웃음을 넘어선 애정과 존경이 자리 잡을 것이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도 하급 장교들에게, “웃으시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웃음을 가르치시오. 웃기 어렵다면 최소한 미소라도 지으시오”라고 했다고 한다.

유머는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 주어 평정심을 유지하게 한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평정심은 편견이나 좁은 시야에 갇히는 위험을 방지하여, 중요한 시기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유머는 지도자에게 관대함을 지니게 함으로써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지도자에게 특히 유머가 필요한 이유이다.

요즈음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여유와 유머를 갖춘 정치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나 개인을 막론하고 무한 경쟁으로 치달리는 각박한 상황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나라들도 상대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여유가 없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주나라 전국시대에 각 나라들이 부국강병만을 추구하던 양상이 재현되는 듯하다. 유머와 관용으로 조화와 화합의 모범을 제시할 지도자의 출현이 절실한 때이다.

연민



너는 꿈을 꾸다. 누군가를 찾아가는 꿈이다. 그 누군가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나무로 만든 집에 살고 있다. 너는 단단한 나무문을 두드려 네가 찾는 누군가를 부른다. 꿈은 물처럼 스르르 흘러 다음 장면에서 너는 네가 찾던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단어 하나가 솟구쳐 오른다.

- 킬러. 당신은 킬러군요.

킬러는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 줌의 찻잎이 담긴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차의 향이 너의 코끝에 닿는다.

- 그리고 세계가 곧 끝나는 거군요.

찻잔을 네 앞으로 밀어주고 킬러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 그런데 당신은 이제 누구를 죽이는 건가요? 세계가 끝나는 마당에?

네 말에, 킬러는 얼굴을 찌푸린다.

- 나는 사람을 죽이는 킬러가 아닙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눈보라가 훑날리더니 풍경 속 모든 색채가 사라진다. 세계의 끝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너는 깨닫는다.

한때 너는 세계가 끝나는 순간을 즐겨 상상했다. 그 상상은 너를 설레게 했다. 더 이상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더 이상 네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 더 이상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를 기쁘게 했다. 잠들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꿈으로 이어질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런 꿈속에 인물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킬러라니.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킬러가 아니라면, 그는 무엇을 죽이는 걸까. 그리고 왜 세계의 끝에서 그를 만난 걸까.

잠에서 깨어난 너는 한 줌의 찻잎을 찻잔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천천히 마신다. 차의 향이 코끝에 훑 닿는 순간 섬광처럼 답이 번쩍인다. 너는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죽이는 킬러라고.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다. 킬러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정들 중에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감정을 선별하여 죽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킬러를 찾아와 감정을 죽였다. 만약 킬러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서로를 죽였을 것이다. 킬러가 다루는 감정은 크게 열두 가지로 나뉜다. 증오, 욕망, 후회, 미련, 두려움, 슬픔, 아픔, 그리움, 질투, 집착, 분노,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랑이다. 역시 당연하게도, 킬러를 찾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랑을 죽였다.

여기까지 쓰고 나서, 너는 홀연한 생각에 잠겨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이 열두 가지 감정으로 충분한 걸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세계의 끝을 멈출 수 있는, 인간의 고귀함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이?

불쌍히 여길 연(憐)은 마음 심(心) 옆에 도깨비불 린(殞)이 어른거리는 모습이다. 도깨비불의 사전적 정의는 '밤에 무덤이나 축축한 땅 또는 고목이나 낡고 오래된 집에서 인 따위의 작용으로 저절로 번쩍이는 푸른빛의 불꽃'이다. 마음에 도깨비불이 번쩍이면 무서울 법도 한데, 이 글자는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고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자신이 놓인 처지보다 어두운 밤 홀로 명멸하는 측은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심할 민(閔)에도 마음 심(心)이 있다. 이 마음은 위문할 민(閔)을 만나 '근심하다', '고민하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閔은 문(門)에 글월 문(文)이 더해진 것인데, 상을 치르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대문에 이 글씨를 붙여놓았다고 한다. 상을 당한 이들의 근심을 그저 바라보지 않고 위로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

연민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는 감정이다. 연민의 감정이 없는 인간은 태연하게 누군가를 속이고, 배신하고, 상처주고, 잔인하게 죽이기도 한다.

한때 너는 네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세계의 끝이라 생각했다. 기껏해야 한 계절도 견디지 못하는 사랑이나 추억 따위는 신물이 났다. 만남과 이별을 되풀이하며 너의 영혼은 절대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 갈망은 세계의 끝에 대한 믿음이 되었다. 그곳에 이르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음껏 후회하고 마음껏 두려워하고 마음껏 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네가 숨기고 참아야 했던 감정들이 팔딱팔딱 날뛰다가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평화로운 잠 속에 꿈도 없이 잠기기를 너는 원했다. 소망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꿈에서 만난 킬러가 연민을 가르쳐 준 그날 이후, 너는 조심스럽게 밀봉해둔 감정들을 꺼내어 하나씩 만져보기 시작했다. 증오, 욕망, 후회, 미련, 두려움, 슬픔, 아픔, 그리움, 질투, 집착, 분노, 사랑, 그리고 연민. 그 모든 것이 너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너의 세계이다.



우리는 풍경 속에 위치하고
시간 속에 놓인다

캐슬린 제이미의 『시선들』

갈등하고 싸움박질하는 부모 사이에서 자란 자녀는 때로 다툼 끝에 찾아오는 부모 사이의 침묵을 가장 두려운 순간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침묵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비범하고 환한 것이다. 캐슬린 제이미의 『시선들』은 북극에 오로라를 보러 가서 맞닥뜨린 침묵으로 시작된다. “침묵을 들어!” 이런 강력한 모순어법은 작가가 자연에 오랫동안 귀 기울이며 터득한 문장이다. 자연의 언어는 인간 언어와 반대돼 때로 ‘이제 당신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자연스러워’, ‘아이를 그만 낳아주렴’과 같은 말을 한다. 죽음과 출

산 거부는 비극이 아니라면서, 오직 자연만을 소재로 삼고 있는 이 책은 얼음과 뼈의 풍경, 파도의 목소리, 계절의 빛깔, 공기와 빙산 냄새, 동물 사체의 흔적들을 들려주면서 자연이 고양시키는 삶의 환희로 당신을 이끈다. 거기에 가끔 인간의 총소리가 끼어든다.

제이미는 북극의 풍경을 보면서 자기 무리를 관중이 아닌 ‘청중’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북극광에 걸린 하늘빛을 보는 중인데 이것을 청각과 연결지어 “서서 침묵을 지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무리 중에는 기껏 북극의 장관을 보러 와서는 춥다며 선실에만 누워 있는 이들도 있다. 대단한 산을 앞에 두고 “나무랑 돌뿐이잖아”라고 말하던 어린이들처럼, 혹은 산 입구에서 음식과 술만 잔뜩 먹고는 등산은 하는 등 마는 등 하는 사람들처럼, 이견 인간들이 한 번씩 저지르는 실수다.

북극 오로라를 보러 오는 이들은 제각각 목적이 있다. 저자의 룸메이트 폴리도 사연을 털어놓는다. 이런 비범한 여행은 건강해서 들뜨고 얇은 이들이 결심하긴 어렵다는 듯이, 폴리는 젊었을 적 큰 병에 걸렸고 이후 삶은 저절로 바뀌었다고 한다. 오장육부 어딘가가 고장 나면 인간은 가장 먼저 마음이 바뀐다. 저자는 그렇게 병자가 되어 마

음이 변하는 일을 “빙산이 충돌하는 것”, “마음의 어둠 속에서 북극 광처럼 들쭉거리는” 것에 비유한다. 여행지에서 만난 폴리가 이런 언어를 떠올리게 해주었으니 여행은 선물이라는 말이 딱 맞다.

『시선들』은 14편의 에세이를 담고 있다. 그중 「병리학」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을 읽던 찰나에 나는 절친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다. 바로 오늘 돌아가셨다. 내 어머니가 아니지만 내 어머니의 죽음처럼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린다. ‘죽음은 타자화’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죽는 사람 입장에서 느끼는 것일 뿐 산 자들은 절대적인 상실을 가슴에 새긴다. 내 친구는 어떤 심정일까? 제이미는 페렴으로 돌아간 어머니의 죽음이 재앙보다는 ‘해방’에 더 가까웠다고, 이것은 시간이, 자연이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과연 내 어머니, 내 친구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맞으며 내면으로만 흐스길 수 있을까. 타인의 부모가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우리가 말하기 힘든 것은 윤리 감정에 위배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슬퍼하는 과정 없이는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일지도.

저자는 이내 깊은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유물들이 진열된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지하실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그곳에서 뼈를 관람하면서 저자는 십 대 때 대학 진학은 생각도 않고 한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야외에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자연에만 둘러싸여 일꾼으로 지냈던 경험은 “가능성으로 충만했던” 여름이었고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그녀의 기억은 나를 로키산맥에 위치한 미국 중부의 한 산속으로 데려다 놓는다.

스무 살에 나는 친구들과 미국에 갔고, 한 달 동안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종교단체의 공동 숙소에서 지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산책할 때는 노루와 마주쳤고,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곰이 집 앞 쓰레기통을 뒤지며 다녔던 흔적과 마주했다. 안개와 산과 찬 공기만 있는 그곳은 ‘진짜 삶’이란 뭘까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른다.

우리가 자연에서 배제되지 않은, 혹은 자연을 배제하지 않은 그곳에서의 기억은 삶의 원형처럼 간직되어 자본제적 삶이 목을 졸라올 때면 더 참된 삶의 가능성으로 나타나곤 한다. 출판인 K가 산에서라면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말한 것이나, 작가 C가 죽어서는 산속 새들의 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 것은 죽으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퇴비가 되고 부식토가 되는 것이 알맞기 때문이라.

『시선들』 곳곳에 시선이 꽃히지만, 가장 특별히 다가온 문장은 이것이다.

“
우리는
풍경 속에 위치하고
시간 속에 놓인다.”

내가 요즘 가장 자주 마주하는 풍경은 무엇일까. 집과 회사 뒤편에 처진 5미터 높이의 공사 가림막이다. 이로써 햇빛을 잃었고, 시선 돌 곳을 잃었다. 눈이 향할 곳이 없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가로막은 벽들은 모두 ‘합법’의 영역에 속한다. 합법이라도 이걸 너무 하지 않냐고 따지면 상대는 당신도 집 지을 때 그러지 않았냐고 되물을 것이다. 반론을 미리 상상하면 이내 체념하는 자세가 된다. 이처럼 풍경이 가로막힌 삶은 매일 소량의 원한을 축적하게 해 이웃을 향한 시선엔 경멸이 담긴다. 린 마굴리스는 낮은 것들 사이에서 오래 지속되는 친밀성을 통해 생명은 진화한다고 했으니, 친밀하지 못한 나와 이웃들은 어쩌면 도태될지도 모른다.

이런 인간들을 일깨우는 것 중 또 하나는 동물이다. 「가넷 서식지」라는 글에서는 가넷의 운명을 관찰하다가 인류가 더 적게 남겨나 아예 안 남겨진 것은 “파국을 면”케 했고, “우리 자신과 수많은 다른 종들을 미래로 이끌 수 있게” 했으니 그 절약 정신이 미래 전망을 띄워준다고 본다.

자연을 찾아 떠나는 작가의 발걸음에는 늘 따라붙는 게 두 가지 있다. ‘침묵’ 그리고 ‘기억’. 베르겐 자연사박물관에 가서도 고래의 목직한 뼈들을 보며 뼈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말한다. 거기에는 인간에게 포획되어 엄청난 울음을 쏟아낸 고래의 목소리가 스며 있다. 전시된 것은 뼈지만, 그 뼈들은 인간이 발라냈을 살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관람객은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뼈를 통해 ‘형이상학’의 세계로 빠져들며 이런 질문을 던진다.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니?’

이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한 가지는 도나 해러웨이의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는 말이다. 친척의 대상이 반드시 인간인 것은 아니다. 나바호-추로 양, 난초, 여우원숭이, 해파리, 바다표범 등이 친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류세’처럼 부자들을 위한 거만한 단어 말고 ‘자본세’란 단어를 써서 비판 지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지의류(地衣類)

지구에 옷을 입히다



석이버섯과 목이버섯

석이버섯과 목이버섯 모두 먹어보셨나요? 똑같이 까맣고 작은 미역처럼 생겨 두 재료를 헛갈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실 석이버섯과 목이버섯은 그 색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생물입니다. 목이버섯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버섯의 일종으로 균류입니다. 그러나 석이버섯은 이름에 버섯이 들어갔을 뿐 지의류(地衣類)입니다. 저는 처음 석이버섯이 지의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도 모르게 지의류를 먹었다는 사실에 놀랐었는데요. 지의류는 우리 실생활에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생물로 여겨집니다. 지의류라고 하면 산속 바위를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나 오래된 비석과 석탑에 버짐처럼 피어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정도인데요. 이끼의 일종으로 여겨 식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의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곁의 지의류

석이버섯의 정확한 생물학적 이름은 석이입니다. 석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자라며 동아시아인들의 독특한 식재료입니다. 석이 외에도 지의류를 먹는 음식문화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북미에서도 석이와 비슷한 지의류를 락 트라이프(Rock tripe)라고 부르며 식용합니다. 흔히 아이슬란드 모스(Iceland moss)라 불리는 지의류는 아이슬란드에서 전통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식재료로 쓰이는데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의류를 카레에 첨가하고 터키에서는 젤리를 만들기도 하지요. 지의류는 음식 재료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의류의 많은 종(種)이 항생제 효과를 갖고 있어 폐렴, 화상, 종기 등의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석이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지요. 저는 영국에서 작은 나무에 샛노란 꽃이 가

득 피어있는 것을 멀리서 발견하고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선명하고 화사한 노란빛은 꽃이 아니라 나뭇가지마다 지의류가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화려한 지의류의 색에 놀랐었는데요. 오렌지색, 붉은색, 보라색 등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을 지닌 지의류는 서양에서 중요한 천연염료입니다. 식용, 약용, 염료용으로 지의류를 접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마 많은 이들이 지의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의류는 향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오크모스(Oakmoss)라고 불리는 지의류는 숲속 향기와 비슷한 향이 나면서도 다른 향을 고정하는 역할로 다양한 향수에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의류란?

이렇게 우리 곁에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는 지의류는 정확히 어떤 생물일까요? 지의류는 한자로 땅 지(地)자에 옷 의(衣)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흙, 바위, 나무껍질 등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끼처럼 식물, 또는 버섯처럼 곰팡이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의류는 식물도 곰팡이도 아닌 아주 독특한 생명체입니다. 그 이유는 단독 생명체가 아니라 곰팡이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류(Algae)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복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공생하는 생물은 많지만 그런 생물들과 달리 지의류는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랍니다. 곰팡이는 광합성 조류에게 물과 양분을 주고 조류를 보호합니다.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을 곰팡이에게 줍니다. 두 생물의 공존은 형태도, 기능도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 혹은 소형 생태계 같습니다. 이렇듯 지의류는 두 생물이 공존하는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 예전에는 분류학적으로 혼동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약 2만 종의 지의류가 알려져 있고 지의류를 구성하는 곰팡이와 조류를 각각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지요.

지구의 중요한 구성원

저는 식물분류학을 공부하면서 국내에 식물분류학자가 부족해 안타까워한 적이 많은데요. 특히 지의류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손에 꼽힐 정도로 더 적습니다. 지의류는 국내에서 거의 연구 불모지인 셈인데,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구 육지 표면의 약 7%를 덮고 있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식물과 달리 흙이 없는 다양한 표면에 자랄 수 있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암석에 처음 자리를 잡는 생물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없는 바위를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어 주지요. 지구상에 가장 극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고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수분이 완전히 손실되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의류를 통해 놀라운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의류는 화성과 같은 조건에서 한 달 넘게 생존하였고, 실제 우주로 보내져 우주 공간에 15일 동안 직접 노출된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진공 상태와 급격한 온도 변화,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을 견뎌낸 것입니다. 북극에 있는 한 지의류(*Rhizocarpon geographicum*)는 8,600년의 나이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지의류는 1년에 몇 mm밖에 자라지 않지만 수천 년을 생존할 수 있지요.

겉에 있는 미지의 세계로

저는 6살에 처음 식물도감을 펼쳐보던 그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니다. 결과적으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큰 세계인 식물계를 공부하게 되었으니 미지의 세계를 발견한 셈이죠. 저는 지의류 도감을 펼치면 그때의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 가까이 있지만 탐험하고 싶은 거대한 미지의 세계니까요. 우리는 흔히 우주와 심해를 미지의 세계로 끝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한 종이 잘 알지 못하는 세계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미지의 세계에 많은 이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탐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뉴스

<202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202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9월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 판결 164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주요 판결문 전문이 수록되었다. 보고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 메뉴에서 볼 수 있다.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 발간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가 9월 30일 발간됐다. 이번호 'Focus on Media' 코너는 '포털의 기사제공·자체편집 제한 논의와 향후 이슈'를 주제로 세 편의 기고가 게재되었으며,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 청구기간 연장 문제 관련 특별기획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관한 글 등도 수록됐다.

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대학생 모의조정대회 개최

위원회는 '창립 40주년 기념 대학생 모의조정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언론조정·중재제도 관련 비대면 강의를 수강한 후, 모의조정 시나리오를 제출하면 결선을 거쳐 우수팀에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Focus



쉽고 간편한 홈페이지 전자신청시스템 - 매년 이용자 크게 늘어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신청시스템을 이용한 조정신청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초기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되면서 더 많은 신청인들이 전자신청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전자신청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조정신청대상 언론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해당 언론사의 법인명, 주소 등 관련 정보가 기입되고 신청서 제출 후 진행 상태 조회를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한편, 조정신청서는 홈페이지 전자신청시스템 외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위원 동정

정혜진 위원, 저서 <이름이 법이 될 때> 출간

정혜진 위원(경기중재부·정혜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은 르포르타주 에세이 <이름이 법이 될 때>를 출간했다. 이 책은 태안발전소 희생자 김용균 씨,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끌어낸 태완이 등 비극적인 일로 희생되었지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법이 된 일곱명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경희 위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 사회

김경희 위원(강원중재부·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은 9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의 사회를 맡았다. 이날 세미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확대 및 운용 합리화 관련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전자신청시스템 화면>

보도와 심리의 전문성 제고

중재위원 임기 반환점을 넘긴
소회와 제언



어느덧 언론중재위원 임기가 반환점을 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프레스센터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비롯해 관훈클럽 모임, 기자회견 등 옛 추억을 간직한 장소로 매주 방문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 하지만 30년 넘는 현역 기자 시절에 중재위와 직접 당사자로 맺은 인연은 거의 없다. 다만, 편집국장 재임 당시 서울 시내 모 대학의 축제 보도 사진으로 당시 로선 생소했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10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에 합의하도록 결정한 사실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조정 심리에 참여하는 ‘전직 언론인’의 입장은 꺾끄러운(?) 점이 없지 않다. 언론계 출신이라는 ‘원죄론’은 차치하더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에서 행여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다행히 필자가 속한 중재부에는 해외 취재에 동반했던 옛 동료가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어 심리적 안정감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아쉽게 느꼈던 점은 피해구제 대상이 된 기사들 중 게이트 키퍼링(Gate Keeping)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청인들의 청구 이유 가운데는 당사자 확인 부재, 크로스 체크(Cross Check) 미비 등 사실 관계 확인 절차 생략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기사 작성의 기본 원칙과 데스크링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반론권 보장 등 기사의 완결성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실·왜곡 보도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친분이 두터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한국식 도제(徒弟) 제도의 성공 사례로 의사, 법조인, 그리고 언론인을 적시한 바 있다.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간간한 선배를 만나야 한다’는 말이 언론계에서 널리 통용되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에 공감을 표했었지만,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없는 언론인이 전문직 종사자를 일컫는 ‘프로페셔널’의 직역에 포함되고, 사회적으로 공인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론매체와 기자의 전문성 제고는 저널리즘 위기 극복의 근원적 해법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아직 갈 길은 멀게 느껴진다.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도 ‘전문성 제고’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과제로 “준사법기구로 운영하는 데 안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중재위원 연임 비율을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일각에서는 중재위원 구성의 다양성 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규정 해석의) 자의성이 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듯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전직 언론인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주요 매체의 보직 부장을 맡기까지 대략 20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의 1차 관문이 자첨병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조사관들에 대한 재충전 및 사기 진작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로는 40년사

오래된 전통을 위하여

C I

언론중재위원회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는 1988년에 처음 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CI는 국민과 언론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상징하는 3개의 펜촉이 합쳐진 모양이었는데요. 창립 초기 여초 김응현 선생의 글씨를 적용한 한자체 로고만을 사용하다 펜촉을 형상화한 CI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C는 2007년 4월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조정과 중재의 머릿글자이기도 한 ‘ㅈ’ 그리고 천칭과 유사한 모양의 C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가교이자 공정한 조정·중재자로서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을 나타냅니다. 또 노랑, 오렌지, 빨강 등 따뜻한 색상을 사용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다 친근하고 온화한 느낌으로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창립 30주년과 40주년에는 기념 CI가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50주년, 60주년에는 어떤 모습의 CI가 선보일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오랜 시간 CI를 통해 되새겨 온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는 공정한 중재자의 모습,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 나갈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언론의 귀와 눈이 되는
언론중재위원회

